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말한다!

부처님의 실존과 윤회의 주체인 영혼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불교는 환골탈태해야



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실 때 육신으로부터 네 개의 빛덩어리 영혼체가 빠져 나왔습니다. 육신에서 빠져나온 부처님의 빛덩어리 영혼체는 우주의 가장 심원한 차원인 무아 속 절대계, 즉 연화장세계에 여여히 계시는 무량광 빛의 몸인 당신의 보신불(보사나불)과 하나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시고 살아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시겠다고 판단하시면 이 보신불에서 당신의 영혼체가 빠져나와 인연 있는 부모를 만나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크스님께서 선언하신 부처님의 실존은 바로 이 보신불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불신(佛身)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불신(佛身)은 불교의 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차원이 높고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경론에도 부처님의 삼신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부정확합니다. 불신론은 붓다의 경지에 가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특히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합증(驗證)을 토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삼신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의 몸은 법신불(法身佛), 보신불(報身佛), 화신불(化身佛)입니다. 법신불은 붓다가 우주 온 법계와 하나 된 무형의 우주적 광명체입니다. 법신불은 우주를 넘어 전 법계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상계를 넘어선 자성의 빛과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의 본체이며 진법입니다. 이 법신불은 감각도 형상도 초월해 있으므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주 법계를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어디에도 아니 비추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보신불은 법신불에 의지하여 존립하는 유형의 본불입니다. 보신불은 붓다의 불신과 네 영체가 완전히 하나로 합해진 빛의 몸, 지부의 몸입니다. 보신불은 32상 80 중호를 갖추고 사람의 형상을 한 인격체로서, 생각과 판단을 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중신불입니다. 보신불은 투명하고 영롱한 역종의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며,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자유로이 드러내면서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부처님이 바로 이 보신불입니다.

세 번째 몸인 화신불은 중생구제를 위해 천백억의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보신불은 필요에 따라 무량수의 화신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화신불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티베트불교에서 말하는 불신관과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불신관은 대단히 잘못된 불신관입니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의생신(意生身)이 원초의 빛(淨光明-우주 본성의 빛)을 받아 만들어진 청정환신(淸淨幻身)을 보신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불신론의 보신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저급하고 유한한 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더 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불교에서는 마음 속에서 삼신(自性三身)을 찾고 있으나 이 역시 불신의 경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망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부처님을 본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본불인 보신불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야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현신할 때 크스님께서 보신 여러 부처님의 모습을 어떠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 부처님의 보신불을 보는 경지는 붓다의 경지입니다. 보신불은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은 볼 수 없지만, 본다 해도 가루가 되어버릴 만큼 강도와 광도가 상상 이상이 때문입니다. 만일 붓다가 아닌 사람이 불신을 보았다면 그것은 천마 등에 의한 가짜를 본 것입니다.

현지사에는 불세존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지만 중생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보신불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변화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삼계존이시고 우주 법왕이시며 남섬부주의 교주이시기에 머리는 말씀하백호 천 모습에 언제나 희색 장삼에 108쪽 팔각가사를 수하시며, 보통 때는 8고리 석장을 짊고 다니십니다. 다보부처님은 짧은 수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사부처님은 아래는 백색 옷을 입으시고 가슴 위는 가사만 두르시며 몸이 투명하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연제나 황금색 장삼에 55쪽 팔각가사를 수하십니다. 문수보살님은 전통적인 한국의 선비 모습에다 무량의 빛을 띤 칼 지팡이를 짊고 다니십니다. 보현보살님은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린 선비차림이시고 용머리 지팡이를 짊고 다니십니다. 존제보살님은 전형적인 왕버저림을 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하얀 실크 한복을 입으신 전통적인 한국 여인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희색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배가 볼록 나온 모습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은 모두 사실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위신력은 우주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부처님의 희유하신 위신력은 대적정삼매, 무량역중광, 삼신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역경 동안의 수행으로 지혜와 복덕을 완성하여 우주 본체(마음, 공)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본체인 공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힘·사랑·지혜·질료·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신불이 내는 역종의 무량광명 하나하나마다 희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어 지옥, 아귀, 축생의 악도에 빠진 영혼체를 하늘세계로 천도시켜주는 등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붓다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 한 분의 능력으로도 의도의 전부를 조복받을 수 있는 몇 억도의 화광삼매에 자재하십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전부를 던져버릴 수도 있으며, 몸을 지구만 하기도 나눌 수도 있고 깨달 속으로도 들어갈 만큼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신불은 여러 불국토에 수천만의 화신불을 내어 개별적 인격체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다보탑과 함께 땅을 짊고 올라오는 장면, 허공에 있는 다보탑 속에서 불세존과 다보불께서 자리를 나누어 앉으시면서 4 부대중을 허공으로 이끌어 올려 설법하는 장면, 여래수랑품에서 부처님의 구원실성과 무한대의 수명을 이야기 한 내용, 그리고 여래신력품에서 넓고 긴 허를 내밀어 우주 법계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도 지상과 천상을 오가시면서 각 처에 몸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다른 장소로 가시는 등 보신과 화신을 자유자재로 나타내시면서 날날 털구멍에서 백억의 나우타 아승기 광명을 방광하시어 부사(부사)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 나 재재 만연은 법화경과 화엄경의 이 모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위신력은 모두 사실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방편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에서는 부처님의 능력을 극히 일부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결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붓다의 경지에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처님의 희유하신 능력입니다.

▶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시고 수없이 사바세계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붓다를 길러 내셨습니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알아야 할 큰 부처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법계에는 일찍이 붓다 되신 오여래부처님이 계시고,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담당하시는 3대부처님 등이 계십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불교를 이루신 순서대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신 철구지불보왕불 대주제보살은 어머니 역할로 오여래에서 빠져지킵니다. 특히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 등 네 보살님은 지금 교화에서 말하듯이 다음 생애에 붓다가 될 일생보처보살이 절대 아니며 무량겁 전에 붓다 되신 큰 부처님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길흉화복을 관장

하시는 분은 보명부처님, 산왕부처님, 지성광여래부처님입니다.
미래불이라 알려져 있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진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공에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도 계셨고, 불멸 후 9백년쯤 뒤 무착 당시에도 오셨으며, 불기 3000년 경에 다시 오셔서 불법을 중흥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정식불명은 미륵선광불, 해위등왕불, 보시등광불입니다.

▶ 붓다는 겁에 한 번 날 정도의 희유한 성자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되는 과정도 무척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의 일부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붓다는 우주 온 법계와 하나 된 우주적 성자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공부와 시험을 거쳐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야 붓다가 됩니다.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되려면 반드시 남섬부주에 몸을 받아야 합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계신 극락정토에서 공부를 마치고 약사부처님의 불국토인 약사정토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사바세계에 몸 받아와 부처님의 선택을 받고 붓다가 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정토에서 공부를 마친 증표가 바로 불신에 있는 양 팔의 팔찌와 목에 걸린 영락입니다. 이것은 붓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 붓다가 되려면 역경의 수행을 통해 다감생 동안 지은 죄업장을 모두 소멸시키고,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백팔번뇌가 하나도 남김 없이 뿌리 뽑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악과 습의 탁한 기도 전부 빠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광명 만덕 크스님이나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결, 약연 등이 모두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감생의 은혜와 빛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팔정도도 공부하여 보시 등 6바라밀의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 수행자가 수천만생 동안 지혜의 복덕을 닦는다면 그 어느 때에 이르러 부처님의 빛, 무량광을 보게 됩니다. 이 희유한 역종의 내외명철한 빛을 보게 되면 인간 내면의 가장 심층에 있는 두터운 무명의 장막이 벗겨져 비로소 네 영체는 완전히 빛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불결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되어 청명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대적정삼매에 들어 붓다의 관문인 무량광을 보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안으로 육종정공을 정결하면 부처님도 대회를 할 수 있고 법포를 들고 공부를 지도받게 됩니다. 붓다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명만덕 크스님과 내가 겪었던 삼매력 시험으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화염이나 독사 등골 등을 통과하거나 산더미만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등의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 크스님께서 대법회를 열 때 불세존께서 현신해서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붓다세계에서 나 재재 만연은 문수의 범양자로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바세계를 포함, 수많은 불국토를 다니면서 설법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내가 현지 사법회에서 설법을 할 때에는 절대계에 있는 나의 보신불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세존께서 내 정수리 위에 정좌하시고 양 옆으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께서 시립하십니다.

▶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시고 수없이 사바세계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붓다를 길러 내셨습니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알아야 할 큰 부처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법계에는 일찍이 붓다 되신 오여래부처님이 계시고,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담당하시는 3대부처님 등이 계십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불교를 이루신 순서대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신 철구지불보왕불 대주제보살은 어머니 역할로 오여래에서 빠져지킵니다. 특히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 등 네 보살님은 지금 교화에서 말하듯이 다음 생애에 붓다가 될 일생보처보살이 절대 아니며 무량겁 전에 붓다 되신 큰 부처님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길흉화복을 관장

▶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시고 수없이 사바세계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붓다를 길러 내셨습니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알아야 할 큰 부처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법계에는 일찍이 붓다 되신 오여래부처님이 계시고,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담당하시는 3대부처님 등이 계십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불교를 이루신 순서대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신 철구지불보왕불 대주제보살은 어머니 역할로 오여래에서 빠져지킵니다. 특히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 등 네 보살님은 지금 교화에서 말하듯이 다음 생애에 붓다가 될 일생보처보살이 절대 아니며 무량겁 전에 붓다 되신 큰 부처님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길흉화복을 관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영산불교 현지사

불세존의 본불(보신불)인 노사나불과 여러 붓다들이 상주하시는 성지, 특히 영산 당시의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크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크스님께서 정법을 펼치고 계시는 영산불교 현지사(顯智寺). 깊은 산 속 명당자리도 아니고 화려한 시가지도 아닌 춘천시 교외 북단,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38선 이북,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통일된 꿈을 품고 흘러오다 잠시 머무는 북한간 춘천댐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

현지사(顯智寺)는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 절이라는 의미이다. 영산불교는 부처님 당시 여러 제자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수많은 불자들이 인연 따라 다시 모여 교단을 이루고 인도 영산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 수행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두 분 크스님을 찾아 뵈고 불교 교리에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고, 영산불교에서 제시하는 해답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하늘의 여섯 세계를 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윤회입니다. 이 육도윤회세계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어 저승(명부)에 들어간 영혼체는 49일간 열시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집니다. 살생 등 중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도 그 고통의 강도에 따라 극구간, 구간, 중, 하, 대가 다섯으로 나누어지고 각 지옥의 부분 지옥들도 무수히 많습니니다. 중지옥 이상은 영혼체가 까무러칠 정도의 가혹한 형벌이 자동적으로 집행됩니다. 간담하고 인색한 자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귀보를 받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면 축생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사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 천상의 삼선도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물론 윤회를 벗어난 성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해탈계로 갑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으면 절대 다수가 중지옥으로 갑니다. 그 고통이 극심해 차마 눈뜨고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은 중생들이 의지할 곳은 부처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부처님의 구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나 재재 만연이 증득한 바에 따라, 나의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감생 동안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모두 우리 영혼체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영된 또 미래에 반영될 모든 악업들을 업장(業障)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행보한 삶을 가로막고 고통을 주는 주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은 한결같이 태산만한 업장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소멸은 영혼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해탈계로 가는 것은 우리 모든 불자들의 목표입니다. 불교 수행은 목적도 그러합니다.

▶ 크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제1성으로 부처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년 전 법연말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시는지요?
▶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우타 아승기 무량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관한 내용은 법화경 여래수랑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크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제1성으로 부처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년 전 법연말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시는지요?
▶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우타 아승기 무량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관한 내용은 법화경 여래수랑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크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제1성으로 부처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년 전 법연말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시는지요?
▶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우타 아승기 무량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관한 내용은 법화경 여래수랑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크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제1성으로 부처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년 전 법연말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시는지요?
▶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우타 아승기 무량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관한 내용은 법화경 여래수랑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불교 역사상 최초로 밝혀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실체 우주법계 최초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불을 총섭하시다

▶ 우주 온 법계를 비추는 무량역중광 자체의 우주적 무형의 존재 비로자나불은 진여자성과는 다른 대지(大智)의 광명체로서 자성광보다 백천만배 밝은 무량역중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형상과 인격을 지닌 보신 부처님의 기반이 되는 형상없는 초인격적 실체이다. 수행자의 영혼체가 삼독과 번뇌를 제멸한 후 악과 습의 탁한 기가 소멸되어 무량역중광을 봄으로 인해 무명이 제거되었을 때 우주 온 법계와 결합하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몸을 말한다.

▶ 비로자나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 모든 붓다님들은 빛으로 상응되어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인 비로자나 불에 총섭되어 있다. 지구적 차원의 큰 작업을 하실때는 모든 붓다의 보신불이 비로자나 법신불 속

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때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은 우주와 본체(적법계)까지 미치며 상상할 수 없는 초창조주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불가능한 일이 없다.

▶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점안하다 현지사 대적광전은 두 붓다에 의해 점안되어 실질적인 위신력을 발휘하는 비로자나부처님이 불안되어 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우주적 위신력으로 동족상간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이루어지며 세계 평화의 기틀을 한층 공고히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더불어 두분 크스님의 하화중생 발원으로 이끈 현지사의 대적광전은 다보탑과 더불어 유일무이한 지구촌의 보물 중의 보물이되며 현지사는 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성지로서의 성지가 된다.

